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㉑ 만해광장과 밀실

광장서 무연대비심의 보살행을 보다

동국대학교 만해동산에서는 서울의 북쪽 북한산을 기준으로 서쪽으로는 명동과 종로 일대가 훤히 보이고 동쪽으로는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용마산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시선을 아래로 돌리면 오늘 산책할 만해광장이 나온다.

만해광장은 남산 중턱에 자리 잡은 동국대의 몇 안 되는 평평한 공간이다. 또 다른 평지로는 이미 둘러본 팔정도와 정각원에서 내려다보이는 대운동장이 있다.

만해광장 초입에는 베트남 고승 틱낫한 스님의 동국대 방문 기념 표지석이 있다. 틱낫한 스님은 여러 베스트셀러 불서로도 익숙하지만, 만해 한용운 스님처럼 베트남에서 불교가 어떻게 현실 참여를 해야 할지 고민한 인물이란 점에서 만해광장과 공명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광장 안쪽 깊숙한 곳에는 동우탑이 있다. 동우탑에는 4·19혁명 때 유명을 달리한 노희두 열사와 동국대 출신의 여러 의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산책 코스와는 다소 벗어나지만 만해광장에서 샛길로 내려가면 세월호 사건 때 학생들을 먼저 구하다 자신을 희생한 최혜정 동문을 기리는 표지석도 나타난다.

노희두는 필자보다 어릴 때 자기 자신을 사회에 던졌고 최혜정 또한 필자와 학번이 같은데도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 나라는 소인 입장에서 광장 위 그들의 숭고미를 생각해 보게 된다.

만해라는 시인의 바탕에서 광장 위라는 사유를 하게 됐으니 최인훈이란 문인 '광장'으로 산책 장소를 옮겨 볼까 한다. 만해동산에 새겨진 '님의 침묵'이 만해 스님의 대표작이듯 〈광장〉은 최인훈의 대표작이다. 〈광장〉은 10번의 개정판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인훈에게는 이 소설이 내려놓지 못한 평생의 화두였던 듯하다.

〈광장〉은 일제 말 해방 초 지식인 이명준의 고뇌를 그린 소설이다. 그는 좌익 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한다. 신탁통치를 넘어 남과 북에 각자의 정부가 생기자 좌익과 관련 있는 이명준은 남쪽에 계속 머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상실에 환멸을 느껴 월북한다.

하지만 월북한 사회에서 좌익 운동가인 아버지의 삶은 조선 말기 부르주아지의 모습 그 자체였으며, 개인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주의 북한에 이명준은 질식해 간다. 여기서 만난 은혜와의 사랑만이 남한이란 광장, 북한이란 광장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던 명준이 도망칠 유일한 밀실이었다.


만해동산서 내려본 만해광장.

남산 중턱 자리 잡은 평평한 공간서
최인훈 '광장' 인간·보살 사유케 해
보살, 밀실 포기·타자 위해 살아가

그리고 한국전쟁이 벌어져 명준과 은혜 모두 참전하게 되고 여기서 명준은 은혜를 포탄에 잃게 된다. 그리고서 그는 포로가 돼 남한이냐 북한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제3세계를 선택해 인도로 가는 배에 몸을 싣는다. 하지만 자신이 설 광장이 없음을 안 명준은 생애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된다.

이 〈광장〉이 독일에서 출판될 때, 독일에는 동일 제목의 작품이 출간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어 '광장' 제목을 '광장과 밀실'로 바꾸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원작자인 최인훈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광장과 밀실'이란 제목은 작품을 너무 풀어 설명해 긴장감은 잃지만 또 이 소설 내용을 이보다 더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제목도 없는 듯하다.

인간에게는 사회적 동물로서 활동할 '광장'이 필요하다. 반면 남과는 공유되지 않는 자신만의 개성이 보존되는 공간인 '밀실'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광장'과 '밀실'의 관계가 이념의 전쟁 한복판에서 무너져 내렸을 때 인간이 어떻게 인간으로 있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광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나'라는 에고(ego)의 기본적 욕망 중 하나가 인정욕이다.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위해 공공의 기준에 맞춰 사회적 가면을 쓰고 광장 위에서 연기를 한다.

하지만 내 안의 욕망은 공공의 광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차라리 욕정이라 할 만한 동물적 욕망에 대해 답답한 가면을 벗고 숨 쉬게 할 밀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욕망은 방목하는 짐승과도 같다. 때로는 풀을 뜯게 내버려 둬야 하고, 때로는 사육장에 가둬야 한다. 인간이든 짐승이든 욕망을 드러낼 광장, 욕망을 풀어낼 밀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생이다.

중생임을 포기하고 살아감이 바로 보살의 삶이다. 보살에게는 광장밖에 없다. 그는 밀실을 포기한 존재이다. 생존 욕구, 번식 욕구, 혹은 그 외에 공공에 드러내기 꺼림칙한 욕망 모두를 포기하고 오로지 타자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보살이다.

보살이야말로 아무런 이해도, 의도도 없다. 그들은 그저 타자를 위해서만 모든 활동이 이뤄진다. 이런 의미에서 보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도를 이루는 데 있어 지혜를 성취하고 그 힘으로 타인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보이지만,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인용하는 근거나 경전상의 증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가장 가까운 예인 석가모니 부처님만 봐도 그렇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로서 수기를 받은 것은 연등불이 나타난 시절 선혜 동자였을 때다. 이 선혜동자 때 연등불에게 앞으로 91겁 뒤 석가모니불이란 부처님이 되어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수기를 받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런데 그는 이미 선혜 동자이기 이전에 삼아승지겁의 보살행을 닦은 이다. 선혜 동자를 기점으로 할 때, 그 이전의 보살행에는 '보살행을 닦아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그저 중생을 향한 이타심에 따라 우주 전체에서 겨자씨 한 톨만한 곳도 예외 없이 중생들을 위해 앞서 본 광장 위의 의인들처럼 몸을 버렸다.

그 희생을 인정받아 그는 붓다가 될 것이라고 인정(수기)받게 된다. 선혜 동자에게는 붓다를 이뤄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이 삼아승지겁 동안 없었던 것이다.

불교란 종교는 인과의 종교다. 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보살행의 무연대비심과 깨달음의 이계과, 이 두 가지만은 불교의 철리라 하더라도 인과로는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교는 이해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이해를 넘어서는 절대적 타자성이 필요하다. 밀실을 포기하고 광장 위에서만 살아가는 무연대비심의 보살행은 부처님을 절대적 타자로 믿게 하는 숭고미 그 자체이다.

〈동국대 박사〉

악업 짓더라도 참회하고 부끄러워 해야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㊷ 의지함이 있는 행(유의행품有依行品)

금강장보살의 발문(金剛將菩薩의 發問)

그때 금강장보살마하살이 대중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합장 공경하며 게송으로 사뢰었다. "그 옛날 말씀하시길 계율을 깨뜨리고 덕을 잃으면 성현의 그릇이 아니며 내 제자가 아니어서 모든 사문의 법을 재처럼 버리나니, 청정한 나의 무리 속에 있을 수 없다 하시고 탐·진·치로 더러워져 바른 도를 잃어 버린 그는 공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스님에게 보시하는 물건을 받는 것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며, 네 가지 근본 죄 중 하나만 범해도 바다에 떠도는 송장과 같이 청정한 대중의 버림을 받는다고! 그런데 어찌 지금은 악한 비구라도 참고 사랑하여 벌주지 말라고 하십니까? …

또 육통으로 세상을 구하는 것을 다른 경전에서 말했나니 마땅히 대승의 정직하고 미묘한 보리도를 믿어야 하고, 이승의 해탈길을 버려야 한다고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삼승을 말씀하시어 두루 듣고 받아 지니고 공양하라고 권하되, 오근·오력·칠각지·팔정도·사문과(沙門果)는 이 경에만 있고 다른 경에는 없다고 하십니까?

또 여덟 가지 거룩한 도는 짝할 이 없어 삼승이 함께 이 도를 행하고 해탈을 위해 정진하여, 각기 그 소원 따라 보리를 증득하라 하십니까? 유정 중에서 가장 높으신 이여, 밝게 살피시고 예전과 지금 말씀이 어긋남 없게 회통하시어 하늘, 사람, 보살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기뻐하면서 진실을 증득하게 하시옵소서. 대승의 말씀 듣고 누가 유익하며 누가 손해이오며 열 가지 해탈[십종해탈성문승十種解脫聲聞乘]의 성문승 설하는 것을 듣고, 누가 손해며 누가 이익입니까? 어떤 사람이 법을 듣고 더욱 향상하며 어떤 사람이 법을 듣고 도리어 퇴보하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유위(有爲)를 싫어하여 늙고 죽음을 없앨 수 있겠나이까? 밤낮으로 온갖 선(善)을 닦는 사람은 어떤 이치를 의지하고 어떤 수레를 타야 넓고 깊은 네 갈래 사나운 번뇌의 흐름을 잘 건너겠나이까? 이 세상 구제하기 위하여 모두 말씀해 주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금강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그대는 지금 무량한 유정들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고 저 하늘, 사람, 아수라 등을 위해서 큰 뜻을 짓고자 여래에게 그런 깊은 뜻을 묻는구나. 그대는 자세히 듣고 잘 명심하여라. 내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금강장보살이 사뢰었다. "예, 세존이시어 즐겨 듣고자 하나이다."

열 가지 사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십종의 사람이 있는데 생사를 윤회하면서도 사람 몸을 받기가 어려우니라. 그 십종이란 어떤 것인가? ①선근을 심지 않는 것 ②복업을 닦지 않는 것 ③잡되고 더러움을 상속하는 것 ④나쁜 벗의 행을 따르는 것 ⑤후세의 고의 과보를 돌아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⑥사나운 탐욕 ⑦사나운 분노 ⑧어리석음 ⑨마음이 미혹하며 어지러운 것 ⑩나쁘고 삿된 견해를 고집하는 것 등이다."

위에서는 열 가지의 사람 몸 받기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하고 아래에서는 나쁜 세계에 떨어지는 10가지의 의지해서는 안 되는 행[무의행無依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 무의행

"열 가지의 무의행의 인(因)은 중생들로 하여금 근본 죄를 범하게 하고, 계율을 헐뜯고 범하게 하여 나쁜 세계에 떨어지게 하느니라.

그 열 가지는 어떤 것인가? 내 법안에서 출가한 이로서 ①수행은 깨뜨리나 뜻은 깨뜨리지 않는 자 ②뜻은 깨뜨리나 수행은 깨뜨리지 않는 자 ③수행과 뜻을 모두 깨뜨리는 자 ④계율은 깨뜨리나 지견(知見)은 깨뜨리지 않는 자 ⑤지견은 깨뜨리나 계율은 깨뜨리지 않는 자 ⑥계율과 지견 모두를 깨뜨리는 자 ⑦수행과 뜻과 계율과 지견을 모두 깨뜨리지는 않으나 나쁜 벗의 힘과 행에 의지하여 무의행을 짓는 자 ⑧비록 좋은 벗의 힘과 행을 의지하지만 우둔하기가 아양(啞羊, 지극히 어리석음)처럼 모든 일을 분별하지 못하여 선과 악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⑨재보와 필수품에 대하여 만족 못 하며 그것을 구하는 인연으로 무의행을 짓는 자 ⑩갖가지 병 때문에 고통을 받자마자 사당의 제사와 주술(呪術)을 구하나니 이런 인연으로 무의행을 짓는 자이다.

이러한 10종 무의행의 인은 중생들로 하여금 근본 죄를 범하게 하여 현재 법 중에서 성현의 그릇이 아니게 하고, 계율을 헐뜯고 범하게 해서 온갖 나쁜 세계에 떨어지게 하느니라. 선남자야, 혹자가 수행은 깨뜨려도 뜻을 깨뜨리지 않고 근본 죄를 범하였더라도 곧 깊이 뉘우치고 거듭 악행을 짓지 않으면, 여래는 그를 도를 더럽히는 사문이 있다고 설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는 중한 악업을 짓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부끄러워하고 참회하나니, 이렇게 참회하므로 죄가 소멸되어 이어짐이 끊기고 다시는 짓지 않기 때문이다."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